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reign Worker's Social Exclu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Byeong-Joo Jeon(okjbj@cbnu.ac.kr)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직 등의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심리적 복지감은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자격과 월수입 등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소비활동 및 생산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외국인 노동자 | 사회적 배제 | 심리적 복지감 |

Abstract

This study was executed to identify the influences that the social exclusion which foreign workers recognize gives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214 foreign worker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who live in Seoul and Gyunggi areas and are working for the simple function tasks like manufactur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 which foreign workers recognize is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average but psychological well-being is lower than the average level.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taying period, healthy conditio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working period of current workplace by each group, but their staying status and monthly income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oups. In addition, working period in current workplace, health conditio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production activities which are the subcategories of social exclus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 keyword : | Foreign Worker | Social Exclu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여 198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3년 산업연수

접수번호 : #120906-006

접수일자 : 2012년 09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12일

교신저자 : 전병주, e-mail : okjbj@cbnu.ac.kr

생 제도를 도입되면서 다국적 근로자 시대를 맞이하였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외국 인력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지만 임금체불, 인권 유린 등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거나 심지어 각종 범죄와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83,319명 중에서 불법체류는 10.64%인 62,105명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대비 11,040명이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은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착취,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문화적 배제와 소외감으로 불려 일으키고, 한국사회의 반감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 실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거주지역의 환경상태나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것을 부정한 비율보다 더 높다고 나타나는[3]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주의라는 인식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노동현장과 일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사회적 활동의 축소 및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4].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하며, 나아가 사회의 공정한 권리와 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5], 최근에는 물

질적인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 요인을 증시하게 되면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경험할 때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증가할 것이며, 더욱이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8].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최근에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연구대상은 장애인 및 여성 등 전통적인 소외계층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김순양 외[2], 김태수[6], 이태정[7] 등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만족스러운 삶을 통한 그들의 역량강화 및 생산력 증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모든 영역에서 만족할 수준의 지원과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어떠한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 사회적 배제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이것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배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산업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문제를 유발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경쟁 및 임금하락에서 오는 불안감과 그들에게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불만, 문화적 위협에서 오는 반경서 등이 작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차별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배제를 받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단일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여기에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배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서[9]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한 합의점은 사회적 배제를 단일한 기준에 입각하여 개념규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뿐이다[10][11].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면서 ‘빈곤’의 영향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차별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 및 접근을 위해 등장하였다[12].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진영[13]은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에 지속적 또는 역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회나 기관으로부터 배제된 것이라고 하였다. 최재성 외[9]는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문제의 측면을 포함하면서 타인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 내지는 지역사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태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배제가 진행되는 과정 및 장기적인 구조고착, 세대간 전승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이태정[7]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들에 대해 행해지는 다차원적인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사회적 배제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 개념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 맞는 적합한 변수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빈곤 이외에 노동참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및 교류기회의 박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되는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근로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으며,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배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14], 그들에게 비차별적인 근로 상설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배제의 다른 차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될 것이다[15].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등의 요인과 그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복지감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으로 동질성이 강하여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더욱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는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과 소외의 결과인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16]. 낯설고 열악한 한국의 환경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인내하며 생활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와 주위 환경의 차가운 시선, 일관되지 못한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다문화 수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해지며, 그나마 진행되는 다문화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더욱 부족하게 된다[17].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장에서 느끼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 정서를 통한 인생 전반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복지감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복지감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하며[8][18],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지각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21].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내지는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22][23],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생존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에서 심리 및 의식 등에 지나친 접근은 그들에게 중요한 노동과 직업의 문제를 부차화할 수 있지만[24],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생산직 및 건설 일용직 등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및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영어 및 중국어 등으로 변환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

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2007)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모든 항목이 .05이상의 요인부하량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 없이 4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6문항씩 총 24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교류',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생산활동',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소비활동', 지역 또는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치적 관여'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4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17이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측정은 Ryff[8]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의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61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8로 나타나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적 및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의 7문항과 근로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수입 및 근무기간

등의 4문항을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기 위해 ANOVA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21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중국(조선족)이 81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필리핀 43명(20.1%)이었고, 중국(한족)이 36명(16.8%), 베트남 24명(11.2%)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87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50세 미만이 62명(29.0%), 20세 이상~30세 미만이 35명(16.4%)이었다. 다음으로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및 중퇴가 70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및 중퇴 61명(28.5%), 대졸 및 중퇴 49명(22.9%)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171명(79.9%)이 한국에서의 체류가 합법적 상태이었고, 27명(12.6%)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상태이었으며, 11명(5.1%)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상태이었다. 이들의 한국에서 체류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82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6월 이상~1년 미만이 53명(24.8%), 3년 이상~5년 미만이 34명(15.9%)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구분	빈도	%
국적	중국(조선족)	81	37.9
	중국(한족)	36	16.8
	베트남	24	11.2
	필리핀	43	20.1
	우즈베키스탄 기타	22 8	10.3 3.7
연령	20세~30세	35	16.4
	30세~40세	87	40.7
	40세~50세	62	29.0
	50세~60세	30	14.0
학력	초졸 및 중퇴	19	8.9
	중졸 및 중퇴	61	28.5
	고졸 및 중퇴	70	32.7
	대졸 및 중퇴	49	22.9
	대학원이상	15	7.0
체류 자격	합법	171	79.9
	불법(1년 미만)	27	12.6
	불법(1-3년)	11	5.1
	불법(3년 이상)	5	2.3
체류 기간	6월 미만	20	9.3
	6월~1년	53	24.8
	1-3년	82	38.3
	3-5년	34	15.9
	5년 이상	25	11.7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12	5.6
	대체로 좋지 않다	68	31.8
	그저 그렇다	78	36.4
	대체로 좋다	46	21.5
	매우 좋다	10	4.7
한국어 능력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15	7.0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64	29.9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	73	34.1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49	22.9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 없다	13	6.1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78명(36.4%)이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68명(31.8%)이 ‘대체로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6명(26.2%)에 불과하였다.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3명(34.1%)이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64명(29.9%)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근로와 관련한 특성은 [표 2]와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15명(53.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6명(26.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33명(15.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인 77명(36%)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68명(31.8%), 2년 이상~3년 미만인 34명(15.9%)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중 사고 경험 유무와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의 만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고 경험이 없었던 노동자는 79명(36.9%)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사후 치료에 만족한 외국인 노동자는 46명(21.5%), 사고 후 치료에 불만족스러운 외국인 노동자는 89명(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료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그 인원이 1~2명인 노동자가 11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명으로 44명(20.6%)이었고,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29명(1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로관련 특성

요인	구분	빈도	%
월수입	50만원~100만원	33	15.4
	100만원~200만원	115	53.7
	200만원~300만원	56	26.2
	300만원~400만원	10	4.7
근무기간	6개월 미만	30	14.0
	6개월~1년	68	31.8
	1년~2년	77	36.0
	2년~3년	34	15.9
	3년 이상	5	2.3
사고경험 및 치료만족	사고경험 없다	79	36.9
	사고 경험 있다(치료 불만족)	89	41.6
	사고 경험 있다(치료 만족)	46	21.5
동료	0명	29	13.6
	1~2명	114	53.3
	3~4명	44	20.6
	5명 이상	27	12.6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의 평균은 3.28(SD=.33)이었고 이것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수준은 정치적 교류가 평균 3.44(SD=.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적 교류로 평균이 3.41(SD=.46)이었으며, 소비활동 3.05(SD=.39), 생산활동 2.96(SD=.32)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평균은 2.69(SD=.30)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배제	사회적 교류	3.41	.466	2.33	4.67
	생산 활동	2.96	.325	2.00	3.67
	소비 활동	3.05	.394	2.00	4.50
	정치적 관여	3.44	.472	2.17	4.67
	전체	3.28	.337	2.38	4.21
심리적 복지감		2.69	.309	1.94	3.50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국적	중국(조선족)	2.63	.263	1.353
	중국(한족)	2.75	.281	
	필리핀	2.71	.335	
	베트남	2.73	.382	
	우즈베키스탄	2.71	.315	
	기타	2.83	.416	
체류 자격	합법	2.70	.311	.180
	불법(1년 미만)	2.65	.294	
	불법(1~3년)	2.71	.333	
	불법(3년 이상)	2.72	.338	
체류 기간	6월 미만	2.48	.355	14.177***
	6월~1년	2.74	.244	
	1년~3년	2.58	.253	
	3년~5년	2.81	.345	
	5년 이상	2.97	.240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2.56	.218	5.746***
	대체로 좋지 않다	2.59	.282	
	그저 그렇다	2.72	.270	
	대체로 좋다	2.78	.340	
	매우 좋다	2.95	.427	
한국어 능력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2.47	.274	8.820***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2.60	.321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	2.69	.257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2.84	.299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 없다	2.90	.263	

***p<.001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p<.001)과 건강상태(p<.001), 한국어 능력(p<.001) 등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2.97(SD=.240)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각각 2.95(SD=.427)와 2.78(SD=.34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심

리적 복지감이 각각 2.90(SD=.263), 2.84(SD=.299)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국적이나 학력, 체류자격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근로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복지감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5]와 같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p<.001), 사고경험 및 치료만족(p<.01), 가깝게 지내는 동료의 수(p<.001)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들의 월수입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운 동료가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졌다. 또한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사후 치료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사고 경험이 없거나,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근로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월 수입	50만원-100만원	2.72	.258	1.169
	100만원-200만원	2.70	.343	
	200만원-300만원	2.63	.247	
	300만원-400만원	2.83	.321	
근무 기간	6월 미만	2.58	.301	5.238***
	6월-1년	2.63	.296	
	1년-2년	2.70	.288	
	2년-3년	2.86	.327	
	3년 이상	2.92	.209	
사고 및 치료	사고경험 없다	2.70	.337	6.647**
	사고경험 있다(치료 불만족)	2.62	.270	
	사고경험 있다(치료 만족)	2.82	.292	
동료	0명	2.51	.329	8.410***
	1-2명	2.67	.295	
	3-4명	2.76	.296	
	5명 이상	2.88	.242	

p<.01, *p<.001

3.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감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II에서는 모델 I에 근로관련 특성인 월수입,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 사고유무 및 치료만족, 가깝게 지내는 동료 수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III에서는 모델II에 사회적 배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1.009~1.641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체류자격(β=.141, p<.05)과 체류기간(β=.230, p<.001), 건강상태(β=.251, p<.001), 한국어 능력(β=.306, p<.001)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모델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β=.144, p<.05), 체류기간(β=.142, p<.05), 건강상태(β=.238, p<.001), 한국어 능력(β=.257, p<.001), 근무기간(β=.216, p<.001), 동료 수(β=.162, p<.05)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서 6.6% 증가한 30.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I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β=.127, p<.05), 한국어 능력(β=.134, p<.05), 근무기간(β=.139, p<.01),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생산활동(β=-.147, p<.01)과 소비활동(β=-.351, p<.001)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II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체류자격, 체류기간, 동료 수는 제외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II에 비해 17.5% 증가한 47.8%로 나타났다(F=15.998,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연령	-.022	-.065	-1.084	1.009	-.019	-.057	-.984	1.024	-.023	-.069	-1.367	1.027
체류자격	.109	.141	2.241*	1.131	.111	.144	2.351*	1.148	.057	.074	1.378	1.181
체류기간	.064	.230	3.459***	1.256	.039	.142	2.097*	1.412	.013	.047	.774	1.495
건강상태	.080	.251	4.177***	1.029	.076	.238	4.087***	1.043	.041	.127	2.399*	1.148
한국어능력	.093	.306	4.891***	1.116	.078	.257	4.010***	1.256	.041	.134	2.334*	1.346
월수입					-.013	-.033	-.568	1.020	-.018	-.043	-.851	1.032
근무기간					.067	.216	3.629***	1.083	.043	.139	2.635**	1.128
사고					-.001	-.001	-.018	1.052	.018	-.010	-.187	1.062
동료					.058	.162	2.506*	1.289	.043	.101	1.770	1.316
사회적교류									-.048	-.073	-1.282	1.305
생산활동									-.140	-.147	-2.700**	1.206
소비활동									-.275	-.351	-5.532***	1.641
정치적참여									-.066	-.101	-1.830	1.235
R ²	.269				.335				.510			
수정된 R ²	.251				.305				.478			
R ² 변화량					.066				.175			
F	15.295***				11.409***				15.998***			

*p<.05, **p<.01, ***p<.001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이 3.28(SD=.33)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의 평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면 정치적 관여는 3.44(SD=.47)이었고, 사회적 교류는 3.41(SD=.46), 소비활동 3.05(SD=.39), 생산활동 2.96(SD=.32)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친구 및 동료, 지역사회 등과 융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교류' 및 여러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정치적 관여'에서의 배제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은 2.69(SD .30)로 조사되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p<.001), 건강상태(p<.001), 한국어능력(p<.001)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현 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p<.001), 사고유무 및 치료 만족(p<.01), 가깝게 지내는 동료 수(p<.001) 등에 있어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수입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모델 I에 근로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동료 수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 I에 비해 6.6%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모델 II의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모델 II에 사회적 배제 요인을 추가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소비활동(β =-.351), 생산활동(β =-.147), 근무기간(β =.139), 한국어 능력(β =.134), 건강상태(β =.127) 순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 III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비해 17.5% 증가한 47.8%로 나타났으며, F값이 15.998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어서 연구대상은 상이하더라도 다소 유사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치적 관여 및 사회적 교류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양호[2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인 비교이지만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낯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득은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노민욱, 박경란[19], 한경혜, 조원지[22], 박미석[26], 조옥희[27], 이영석, 최희선[28], Wilson & Peterson[29]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에 소득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양호[25]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Ryff[8]와 박미석[2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배제의 생산활동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처우 및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력은 물론 그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한 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현실에서 근로현장 내지 교육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기술역군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성공적인 적응과 심리적 복지감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들이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모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족할 만한 소비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임금이 체불이나 편취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인 집단 거주 지역에 그들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하여 상호교환 내지는 최소한의 구매활동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활동의 제약에서 오는 사회적 배제의 지각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직장생활 중에 임금착취 내지는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게 되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주 입장에서라도 숙련된 노동자가 자주 이직하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모되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용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 상담을 확대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고용주의 보증을 전제로 그들을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을 크게 느끼므로 의료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6.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그 영역 비율이 51.5% 이르는 것[30]을 볼 때 그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더욱이 그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심리적 복지감을 보이므로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사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더불어 장기적 실

업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들의 영구적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입국시부터 소급된 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 후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과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의 사회적 교류 및 정치적 관여, 월수입과 체류자격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적 교류 및 자신의 의견 표명 등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 제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경제적인 충족만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욱이 고용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고임금보다는 근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체류자격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과 불법체류 신분상태가 되더라도 한국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체류자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이 본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방안 이외에도 그들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공적인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그들의 헌신성과 소속감을 높여[31]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남

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외국인 노동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임에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주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음 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7월호, 법무부, 2012.
- [2] 김순양, 이지영, 남경선,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제15권, 제2호, pp.1-30, 2008
- [3] 윤인지,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권, pp.143-192, 2011.
- [4] T. Scharf, C. Philipson, and A. E. Smith,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excluded older people,” Working with Older people, Vol.9, No.3, pp.32-35, 2005.
- [5] R. Levitas, C. Pantazis, E. Fahmy, and D. Gordon,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2007.
- [6] 김태수,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pp.305-326, 2009.
- [7] 이태정,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사회연구, 제10권, pp.139-178, 2005.
- [8]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 [9] 최재성, 강영숙, 김진욱,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

- 지조사연구, 제21권, pp.309-341, 2009.
- [10] A. Weinberg and J. Ruano-Borbalan, *Comprendre l'exclusion*, Sciences Humaines, Vol.28, 1993.
- [11]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pp.87-107, 2010.
- [12]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pp.178-208, 2001.
- [13]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pp.253-277, 2004.
- [14] 이증섭, 이용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7호, pp.1-27, 2009.
- [15] 강신욱, “사회적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전망, 제66호, pp.9-31, 2006.
- [16]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17]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18] 홍순복, “세무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pp.298-305.
- [19] 노민욱, 박경란, “중년기 직장 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55-269, 2008.
- [20]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21]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 [22] 한경혜, 조원지,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pp.1-20, 2001.
- [23] D. Umberson and W. R. Gove,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0, No.4, pp.440-462, 1989.
- [24]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pp.299-333, 2012.
- [25] 김양호, “중년남성의 건강과 사회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03-126, 2005.
- [26] 박미석,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pp.19-33, 1996.
- [27] 조옥희, 김경신,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29, 2005.
- [28] 이영석, 최외선, “여성단체활동자의 역할갈등과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201-218, 2011.
- [29] S. M. Wilson and G. M. Peterson,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Adult from Rural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37, pp.84-91, 1988.
- [30]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2011.
- [31] 김동희, 하규수,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187-201, 2011.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희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장애인